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비틀어 보기

광주문예정터·극단 진달레피네 기획 '프리즘' 공연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비틀어 보기.’

록 뮤지컬로 재탄생한 ‘리어왕’, 고단했던 한국사의 중심에 선 ‘오델로’, 뮤지컬로 풀어낸 ‘햄릿’, 해설과 함께 만나는 ‘맥베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마련됐다. 흥미로운 권 역작의 내용은 살려내 연출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400여년 동안 전 세계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함 테마인 사랑, 질투, 욕망 등은 현시

대, 어느 곳에서나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올해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공연장 상주예술단체로 선정된 광주 문예정터와 극단 진달레 피네가 ‘셰익스피어의 프리즘’을 기획했다.

공연작품은 ‘그대 이름은 오델로’(4~5일), ‘괴로워도 슬퍼도-맥베스 이야기’(11~12일), ‘리어왕’(18~19일), ‘To be or not to be’(25~26일)다.

첫 테이프를 끊는 ‘그대 이름은 오델로’는 지난 10월에 열렸던 광주 국제공연예술제에서 첫 선을 보였던 작품이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등을 만든 권호성 연출(극단 모시는 사람들)

이 진두지휘한 연극으로 1927년생 강현민이 일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수레바퀴와 함께 굴러간 자신의 역사를 극중극인 ‘오델로’ 속에 풀어낸 작품이다.

‘...맥베스 이야기’는 배우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류태호(극단 붕)가 연출을 맡았다. 질투와 욕망, 탐욕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의 모습을 음악과 움직임, 장면면에 따른 해설의 등장 등 독특한 장치로 보여준다.

이벤 무대가 초연이다. 김균형(호남대 다매체영상학과) 교수가 연출한 ‘리어왕’은 록 뮤지컬이다.

리어왕과 딸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4~5일	그대 이름은 오델로
11~12일	괴로워도 슬퍼도-맥베스 이야기
18~19일	리어왕
25~26일	'To be or not to be'

맞춘 이 작품은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국 파멸이 있을 뿐’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강렬한 록음악을 중요 장치로 삼았다.

오세준(동서대 뮤지컬학과 교수) 씨가 연출한 ‘To be or not to be’는 ‘햄릿’을 뮤지컬로 풀어낸 작품이다. 왕비 거트루드의 욕정이 빌미가 돼 살인에 이르고 마는 햄릿과 등장 인물들을 풍자적으로 그렸다. 역시 광주 초연작으로 이상휘·김재익·

윤보라씨 등 극단 진달레 피네의 단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진달레 피네 최영화 대표는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시대적·지역적 특성을 가미해 색다른 작품을 만들어낸 흥미로운 프로젝트”라며 “흡입력 있는 대사 등 고전 작품이 갖고 있는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25-51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벨칸토성악아카데미 초청 자선음악회

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하모니.

국제라이온스클럽 355-B1(광주) 지구 상무라이온스클럽(회장 안재섭)은 4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벨칸토성악아카데미 초청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광주 지역 성악가들 모인 벨칸토성악아카데미(음악감독 구재창·사진)는 이날 공연에서 볼프 리브렌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너이상 날지 못하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 등 다양한 곡을 선사한다.

소프라노 김혜미씨가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중 ‘무지개 넘어 저 멀리’, 차선영씨가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테너 이진희씨가 나폴리 민요 ‘오 나의 태양’, 메조소프라노 임선아씨가 키아라의 ‘라 스프랴노’, 바리톤 김철용씨는 함경도 민요 ‘신고산 타령’을 부른다.

바리톤 김용원, 소프라노 진수정·김선희, 베이스 최철, 소프라노 나혜숙, 메조소프라노 서승희, 테너 윤영문·양정은·박진영씨 등도 아름다운 곡을 선사한다. 문의 062-675-60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0번째 ‘광주국제영화제’ 새로운 도약을 향해

9~12일 메가박스 GIFF & 서포터즈: 회고와 전망

2010광주국제영화제(GIFF)는 민간 차원에서 꾸러가는 문화행사다. 5년전부터 광주시의 지원이 끊기면서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지역 영화인과 매니아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10주년을 맞는 올해는 ‘GIFF & 서포터즈: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는 9~12일까지 광주 메가박스(3개관)에서 열린다.

현재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광주시와 협의하는 등 영화제를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해 온 주최측은 올 영

화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응원 영화제’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상영작은 8개국 장·단편 40여편이다.

개막작은 내년 초 개봉 예정작인 노르웨이 벤트 해머 감독의 ‘오슬로의 이상한 밤’이다.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초청작으로 감각스레 은퇴를 맞게 된 전직 기관사가 남은 인생을 꾸러가기 위해 펼치는 모험을 유쾌하게 그린 코미디다.

메인 프로그램인 영시네마 섹션에서는 조슈아 레너드의 아트 다큐멘터

리 ‘뉴티플 투저’와 토모 스텝 감독의 ‘우리들의 짧은 영혼, 이응일 감독의 ‘불청객’ 등이 상영된다.

지난 9년간 상영작 가운데 대표작을 다시 보는 섹션에서는 프랑스 뮤지컬 코미디 영화 ‘입술은 안돼요’,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인상적인 ‘언러브드’가 상영된다.

‘Justice & Action’ 섹션에서는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다룬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혁명을 꿈꾸었던 1967년 독일 열혈 청년들의 모습을 그린 ‘바다 마인호프’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윤성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송 지아과 감독의 ‘태양을 향하여’, 영화제 집행원 원장을 맡고 있는 ‘편지’의 이정국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살인에 관한 네 가지 이야기 ‘착한 살인자들’도 상영된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일본 마사미 리이치로 감독의 애니메이션 단편과 광주국제영화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마련한 ‘시민단편드라마 제작교실’에서 만든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민단편영화 스페셜’도 눈길을 끈다. 판토마임 무용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김래원씨의 ‘마인’, 2010 서



‘오슬로의 이상한 밤’

울노인영화제 최우수상 수상작인 ‘사랑해요 아바님(전영수) 등9편이 상영된다.

자세한 시간표는 영화제 홈페이지(www.gif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티켓 가격 5000원.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

독창·바이올린·피아노

“갈고 닦은 실력 뽐내요”



5일 학생음악경연대회 입상자 발표음악회

순수의 목소리가 깊어가는 겨울을 물들인다.

한국음악협회전남도회(회장 이호근)는 오는 5일 오후 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30회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우수 입상자 발표음악회’를 연다.

장우원(광주서초교 4년)·장우중(서초교 4년)·김인우(전남예술고 2년)·군, 서우진(송정동초 1년)·황수현(금당초교 1년)이 양이 독창을 부르고 정창민(문정초교

1년)군이 바이올린 협주곡 1장 1악장을 연주한다.

또 피아노 부문에서는 박산솔(경신중 3년)군이 월광 3악장을 연주하고, 김세민(신암초교 2년)양이 모짜르트 소나타 K.545 1악장을 들려준다.

한편 지난 10월23일 지역 유치원, 초·중·고생 500여명이 참여해 독창부, 현악부, 관악부, 피아노부 나뉘 예선을 치렀다. 문의 062-510-9303. /김미은기자 mekim@

‘우리시대의 초상’ 최은성 사진전 8일까지 갤러리D

사진작가 최은성(순천대 사진예술학과 부교수)씨가 오는 8일까지 갤러리D에서 개인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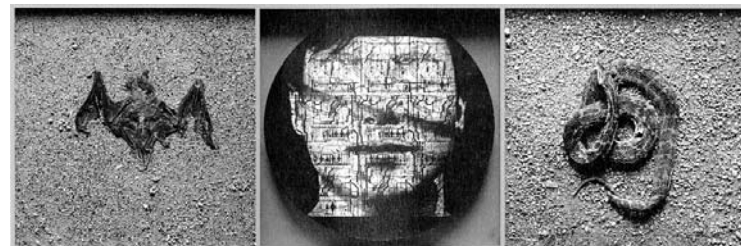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최씨는 ‘우리시대의 초상’을 주제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신작을 발표한다.

바짝 마른 죽은 물고기와 새 등의 이미지와 거친 나무의 질감이 만나 묘한 울림을 주고, 무표정한 인간의 얼굴에서는 삶에 대한 간절한 의미가 느껴진다.

또 사진 속 신체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따로 붙여 소멸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담았다.

최씨는 “죽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사진학과와 대학원을 나



은 뒤 서울, 광주 등지에서 11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222-

80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립극단 예술감독 7명 지원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단장) 공개 모집에 7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광주문예회관은 2일 “송순섭 단장 취임으로 예술감독 공모를 진행한 결과 모두 7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응모자는 김종진(우리극창작연구소장), 김경호(창극 광대 대표), 윤진철(윤진철 국악예술단 대표), 이대휴(전 광주국악협회장), 이순자(전 광주시립극단 지도위원), 박광석(전

전남도립극단 사무국장), 정철호(전 전남도립극단 지휘자)씨 등이다.

회관측은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형위원회를 개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촉 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급여는 연 5600만 원선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송년, 신년 모임도 아리랑 하우스에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소중한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예약**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 하우스** **문의 525-2111**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평겨울 연인과 함께!!**

상무점 **창도시향 영화시향 콜롬버스시네마** 아남점

1관 언스터퍼블(12세)/더콘서트(전체)(15세)	1관 스카이라인(15세)/두여자(18세)
2관 라스트 엑소시즘(18세)	2관 제제한 로맨스(18세)
3관 제제한 로맨스(18세)	3관 이층의 악당(15세)
4관 이층의 악당(15세)	4관 제제한 로맨스(18세)/불량남녀(15세)
5관 스위치(15세)/듀데이트(18세)	5관 스위치(15세)
6관 스카이라인(12세)/워리어스웨이(15세)	6관 워리어스웨이(15세)
7관 스카이라인(12세)	7관 라스트 엑소시즘(15세)/불량남녀(15세)
8관 부당거래(18세)	8관 더콘서트(전체)/워리어스웨이(15세)
9관 초능력자(15세)	9관 초능력자(15세)
10관 워리어스웨이(15세)	10관 스카이라인(12세)

상영권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7941

항도시향! 영화시향! 매일 심야상영/호남최대주자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워리어스웨이(15세) 최고급관
2관 제제한 로맨스(18세)
3관 초능력자(15세)
4관 부당거래(18세)/소셜네트워킹(15세)
5관 제제한 로맨스(18세)
6관 라스트 엑소시즘(15세)/스위치(15세)
7관 이층의 악당(15세)
8관 스카이라인(12세)
9관 워리어스웨이(15세)

영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 정상이음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이층의 악당(15세)
2관 초능력자(15세)
3관 렛미인(15세)/페스티벌(18세)
4관 쏘우3D(18세)/소셜네트워킹(15세)
5관 부당거래(18세)
6관 듀데이트(18세)
7관 스카이라인(12세)

색깔있는 영화시향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